

佛教의 眞髓

朴秉鎬

一, 序 論

佛國近代의 文豪 우익구도루氏의 人生觀에曰「最히 榮貴를 極히 人의 一生涯를 通觀
할진디 實際上 樂이 悲보담 少하다 그러니 曇天이 吾人의 게 適好히 天氣라」 하엿고 日
本 近世의 碩儒 太田 錦城氏는 塵芥를 評하야曰「善도 必히 賞치 못할 것이며 惡도 必히
罰치 못할 것이다 天下의 事는 白晝大道를 直走함과 如함이 無하다」 하엿다

아-人生은 如斯히 暗澹함인가…… 榮枯는 夢과 如하고 盛衰는 泡과 幻함이라 浮世
에 跨히야 何를 賴할가 無常한 風雨는 貴賤老幼貧富를 勿問히고 朝의 紅顔이 夕의 白髮
催促한다 翠帳紅閨에도 悲慘이 새로 생기고 錦繡衣裾에도 淚痕이 새로 젖는다 「此是
應捨罪惡物, 假名爲身, 沒在老病生死大海」 라謂호지로다 아-吾人은 終是 이 悲境
을 脫히기 不能함가…吾人은 此 廣漠無邊한 空間에서 太倉稊米와 如히 微形을 有하니
上에는 日月이 照臨하고 下에는 山河가 羅列이라 耳目의 視聽호는 바-口鼻의 臭嘗호
는 바-生死를 縷와 如히 其中에 繫호얏스니 眞實너 「不知生所從來, 死所趣向」 이此
를 謂함이 아닌가 幸福은 人의 欲望호는 바이르되 天이 만이 賦與치 아니호고 或賦與
호더라도 卽히 此를 反奪호며 困苦는 人의 憎惡호는 바이로되 人間到處에 災厄이 數多
하니 天地는 何를 爲함인지 吾人을 驅하고 吾人을 率호야 如此히 黑闇々裏에 陷擠호노
彼無情호 山河날 問而不答호고 一簞食一瓢飲으로 陋巷에 在호야 其樂을 歌호든 古人
도 追而不還호니 腔子에 滿溢한 不平々호 氣概를 何處에 訴호랴 噫라 吾人은 到底히
安樂을 永享호기 不能함인가

人이 血과 淚가 無호는 者誰가 有호노 旣是 血이 有하고 淚가 有한者엇지 這般의 情想이 無
하리오 吾人은 此를 謂하되 先天의 宗教思想이라 하며 此情想을 因하야 組成된 宗教를
自然敎라謂한다 世上에 大慈大悲의 先覺者가 無호면 己어니와 大慈大悲의 先覺者가
有하야서 一滴의 淚를 拭지 此悲慘호 人生의 濺치 아니호며 一點의 血을 拭지 此情想
을 爲호야 沸치 아니호랴 彼의 慈悲 彼의 權能 彼의 勇氣는 立즉 此況을 達觀호고 雷雨
一過山更靑과 如히 利刀을 一閃호야 煩惱를 斷離호고 淸淨의 境에 入호야 天空快濶의

으로生死苦樂의所由然의根因을明知하야罪惡苦痛을離하고安樂幸福을享하는善美眞境이잇슴을顯示하야써一切衆生으로하여금其德化에涵浴게하나니此를云하되顯示者라하며敎主라한다이自然의情想과이顯示者를相合하야서茲에眞正한宗教를組成함이로다然而緣이無한衆生은度하기難하다設令顯示者가有하다홀지라도自然의情想이無하면敎를垂하기不能하고自然의情想이有하다홀지라도顯示者가無하면永히苦界에迷하야樂界를得하기不能하다그러니이顯示者와自然의情想이即宗教의二要素라홀지로다然즉何를宗教라云하나뇨.

想惟컨디人은冷灰와如한理性이잇고熱火와如한情感이잇다이理性과情感을調和하야비로서安心立命의途를得하며眞正한快樂을享受함을得하나니煩惱를斷離함이宗教의任務이다此의智로서彼의情想을究하며此의情想으로서顯示者의게信을與하난것이可하다宗教란調和를意味함이니能히悲情智를圓滿케하라人生의樂은有限이오또相對이다그럼으로專一하고永遠치못하다有限인故로煩惱-적로起하고相對인故로眩迷-적로生함이나인가 宗教는調和를意味함이니이有限을離하고相對를脫하야絶對無限한境域에入할지어다

換言하면宗教란有限과無限 相對와絶對를調和한것이다更히換言하면宗教는神人の契合이며衆生과佛陀의調和를計圖함이라何로써神人の契合이며衆生과佛陀의調和라云하느냐하면記者此를說하기前에몬져差別과平等에關한見解를畧述치아니치못할지로다

彼虛空의明月이淸影을放하야万物에遍照할식그萬物의衆이各異함을隨하야月의影도無量함과如하되그의體는本來同一性으로殊別이無하다天을望하면日月星辰이整然森列하야空際에懸하얏고地를視하면山河大地草木禽獸의歷然하기目에觸하는者-千差萬別노一様の觀이無하다그러나此을一翻하야達觀할진디日月星辰이差別의體相이有하되同一한天이라天되는平等의理性을害치아니하며山河草木이亦殊異하나體相이로되同一한地라同一한地됨에平等의理性이잇고老幼男女貧富貴賤의差別이劃然하기其序를不紊하다하되人의人됨에는平等일다그러나平等이라고는하지마은老幼男女貧富貴賤의別, 山河大地草木禽獸의差, 日月星辰의異가不無함이라差別의裏에는平等의理性이잇고平等의中에는差別의體相이잇다天地를貫하고三世에涉하는眞理는한갓平等의理性만認하고差別의現象을忘하랴差別에만眼을注하고平等의一理가잇슴을不知하는者는與하야足히宇宙의眞理를談하지못홀지라宇宙의眞理를足히談하지못홀진디何를以하야足히人生의調를計하랴... 一色一香이모도道에合致치아니함이엄스니一縷의柳絲와一片의梅花도亦是平等差別의理를示한다宗教는眞實노此의性相을調和치아니치못할것시다한갓그平等으로觀할진디佛과衆生의差別이無하고迷와悟가一이요二아니라善도無하고惡도無하고苦도無하고樂도無하다또한갓差別노셔觀할진디 森羅萬象이

整然히기善惡苦樂이歷然히기分하였다平等은이法性眞如의一理오差別은이現象의實際界라此二者는人生의智情이되나니智는能히道理를推究하며情은能히信念을生한다智는進하야平等의研究에入히고情은退하야現象界의因果를想한다想은哲學에關하느바-라그러나研究가進하야絶對에入할時는既히哲學을離하야智情을調和하느宗教의域에入함이로다或智로서哲學의域을삼고情으로서宗教의世界를삼는다할지라도吾人은此二者를調和함이아니면眞正히宗教라고稱히기에肯치아니한다

上來縷述한바를更히約言할진대平等은無限이오差別은有限이라有限히差別인故로服從치아니치못하며關係的이되지아니치못하며不完全不自由함이되지아니치못한다吾人은此相對的의有限界에서如何히할것을研究치아니치못할지오無限히平等은即眞如의一理가天地를包容함인故로獨立이요絶對요唯一이요完全하다是以로人生을調和히기得하나니라有限과無限, 神과人, 佛과衆生, 平等과差別, 智識과情感, 討究와信仰, 理論과實際를調和히야비로서迷를轉히야悟를開하나니此轉迷開悟가即宗教의目的이다그러나世界各種의宗教는此의調和法을得宜치못함이라惟獨佛教는此를調和하야能히轉迷開悟의目的을達함이라하노라 完未